

 POSRI 보고서

이란 핵 협상 타결을 계기로 살펴본 사업진출 점검

서상현 수석연구원, 글로벌연구센터 (unisa21@posri.re.kr)

[목 차]

1. 이란 핵 협상 타결 내용과 영향 분석
2. 핵 타결 이후 이란 주요 사업 진출 분석
3. 이란 시장 진출 방안 및 시사점

Executive Summary

- 이란과 P5+1 국가들(미, 리, 중, 영, 프, 독) 간의 핵 협상 타결에 의한 이란의 정치·경제적 리스크 감소로 이란 경제 활성화 전망
 - 이번 핵 협상 완전 타결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UN은 이란에 가한 제재를 해제하고 이란은 핵 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할 예정
 - 핵 협상 타결로 이란은 원유 및 천연가스 개발을 통한 경제성장 발판을 마련하였고, 미국은 중동에서 가시적인 외교 성과를 거둠
- 석유 전문가들은 핵 협상 타결로 이란産 원유 공급이 확대돼 국제유가는 당분간 50달러 선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
 - 제재가 해제돼 이란산 원유가 국제 석유시장에 풀리면 원유가격은 현재보다 배럴당 5~15달러 하락할 것이라고 IEA는 전망
- 핵 협상 타결의 가장 큰 수혜국인 이란은 풍부한 인구와 자원 보유 및 중동 최대 시장 중 하나로 향후 우리기업들의 주요 진출국으로 부상할 전망
 - 특히 원유매장량 세계 4위, 천연가스 매장량 2위 등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많은 건설 프로젝트 발주할 것으로 예상됨
- 따라서 포스코 및 그룹사는 이란의 주요 진출분야를 선정해 이란 경제제재 해제에 따른 진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함
 - 기존 이란 주요 진출 사업분야는 건설, 철강, 자동차부품 등이며 이외 IT 및 자원 trading 등도 유망 진출 분야임
 - 가장 큰 관심분야인 건설시장은 2016년 1,550억 달러 규모로 증가할 전망
 - 또한 중동 최대 자동차생산국인 이란은 2025년까지 연 250만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, 철강시장 역시 2025년까지 5천만톤 수요 예상
- 반면, 경제제재 해제로 진출시 많은 손해가 예상되지만, 지정학적 리스크와 외국 기업들과 경쟁심화, 파이낸싱 확보 어려움 등 점검해야 할 요소들도 적지 않음
 - 따라서 국내기업들이 이란 진출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점검, 이슬람문화 이해,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JV 설립 등을 통해 진출할 필요가 있음

〈주요 분야 진출 방안〉

건설시장	▪ 에너지 프로젝트 최우선 발주 → 부족한 철도, 항만 등 인프라 분야
자동차시장	▪ 이란 주력 제조업으로 경쟁력 높은 부품분야에서 자동차 관련 철강
Trading	▪ 이란 제재해제시 생필품 등 소비재 수요 급증예상 → 소비재 우선 관심

- 이란은 한류 열풍 등으로 한국인 및 제품에 대한 우호적 감정을 가지고 있어 이를 활용한 마케팅 필요
- 반면, 정치변동성과 문화적 상이(이슬람문화) 등 정치, 경제적 리스크 대비

1. 이란 핵 협상 타결 내용과 영향 분석

□ 이란-P5+1 간의 핵 협상이 최종 타결됨으로써 이란에 대한 유엔 및 서방의 제재가 단계적으로 해제될 전망

- 최종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이란의 핵 시설에 대한 완전한 사찰과 IAEA의 사찰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실시하게 될 이란에 대한 서방의 제재 해제임

<최종 협상안 주요 내용>

항목	주요 내용
핵사찰	파르진 고폭실험실 등 이란 군사시설 사찰 합의
우라늄 수준	20% 고농축 우라늄 → 5%이하의 저농축 우라늄으로 변환 보관
핵 기술 연구개발	이란 핵 과학자에 대한 면담 허용
제재 해제 관련	올해 말까지 IAEA의 군사시설 사찰 결과에 따라 해제 여부 결정
무기금수	이란에 대한 무기금수는 5년,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제재는 8년간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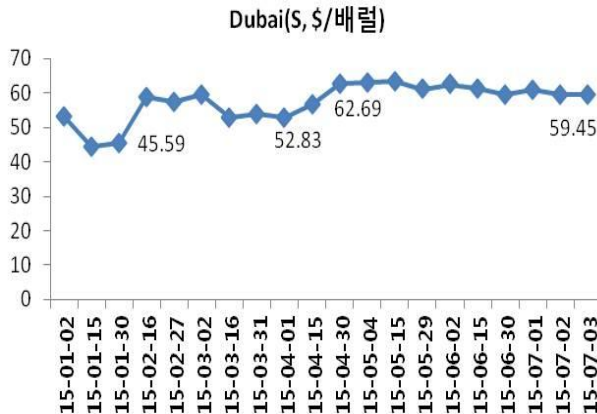
- 이번 핵 협상 최종 타결로 이란은 해외 동결자산 회수 등 금융 및 산업부문의 제재해제로 경제 활성화 기대
 - 이란, 해외에 동결된 자국 자산 약 1천억달러를 회수할 수 있게 될 전망
 - 특히 이란 내에 동결된 국내 주요 업체들의 자금회수도 가능해져 이란 사업 재개에 청신호

□ 이란 핵 협상 타결로 국제유가 하락 및 이란의 경제구조 변화 예상

- 석유 전문가들은 핵 협상 타결로 이란産 원유 공급이 확대돼 국제유가는 당분간 50달러 선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
 - 국제 에너지기구(IEA)는 제재가 해제돼 이란산 원유가 시중에 풀리면 원유가격은 현재보다 배럴당 5~15달러 떨어질 것으로 전망
 - 이란은 현재 일일 280만 배럴 생산에서 제재 해제 시 일일 340~360만 배럴까지 증산할 계획이며, 이미 원유 약 3,000만~4,000만 배럴을 유조선에 실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
 - 비잔 잔가네 이란 석유장관은 “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되면 수개월 안에 원유 수출량이 하루 100만 배럴 증가할 것” 이라고 밝힘
 - 이란 원유 수출량은 2011년 260만 배럴에서 2015년(6월) 140만 배럴로 하락

- 사우디를 비롯한 주요 산유국들도 원유시장 점유 경쟁을 하고 있어 국제유가의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
 - 6월 기준 전세계 산유량은 9천600만 배럴로 전년 동기보다 300만 배럴 증가

<국제원유가(두바이유)>



자료: 국제금융센터

<이란원유 일일 평균생산량(천배럴)>



자료: MUNDI

- 이란은 원유생산 증대를 통해 안정적 수익확보 및 자동차, 화학, 철강 등 제조업 육성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전망
 - 전문가들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뒷받침된다면 원유 총 생산량이 2015년 270만 b/d → 2020년 340만 b/d → 2025년 440만 b/d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
 - 이란 정부는 국제유가 하락에 의한 재정적자 만회를 위하여 비석유제품(non-oil)의 수익을 증대하고, 세수율을 최고 23%까지 높이며, 국가개발기금(NDF) 적립금 활용 등을 새 예산안의 중점 정책으로 언급
 - IMF, 2015년 이란 경제 침체 및 균형재정을 위한 기준 유가가 배럴당 U\$131이기 때문에 현재의 저유가 수준을 감안할 때 보조금 삭감, 세수확대, 환율 절하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

2. 핵 최종 타결 이후 이란 주요사업 진출 분석

□ 이란은 한반도의 약 7.5배에 달하는 국토면적과 아시아·유럽·중동을 연결하는 허브로 7개국과 국경을 접하는 지정학적 가치 지님

- 또한 총 인구 8,000만 명 중 2/3이상이 고등교육을 받았고, 전체 인구의 60%가 30대 이하 젊은 층인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음

- 최근에는 탈석유화를 위한 산업 다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
 - 1990년대부터 5년 단위 경제·사회개발 계획을 추진하여 석유 의존형 경제구조 탈피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
-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는 6월 30일 발표한 ‘제6차 5개년 개발계획’ (2015~2020)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8% 경제 성장의 실현을 강조함
- 이를 위해 외국투자의 적극적 유치, 에너지 산업 개발, 역내무역 증대, 철도 등 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하였음

○ 이란은 원유 및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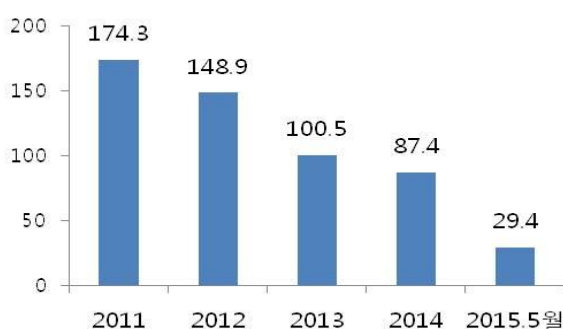
- 원유 매장량 세계 4위(사우디아라비아-베네수엘라-캐나다-이란),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2위(러시아-이란-카타르)를 차지하고 있음
- 에너지 자원 이외, 철광석, 구리, 석탄 등의 매장량도 세계적 수준

□ 제재철회로 이란은 외환시장 안정, 석유수출 증대, 외국인자본 유입 증대 등 경제분야에서 큰 변화를 경험할 것으로 전망됨

○ 특히 제재 이전 이란은 한국의 주요 교역 파트너이자 주요 건설·플랜트 시장으로 이란은 한국의 6대 건설시장이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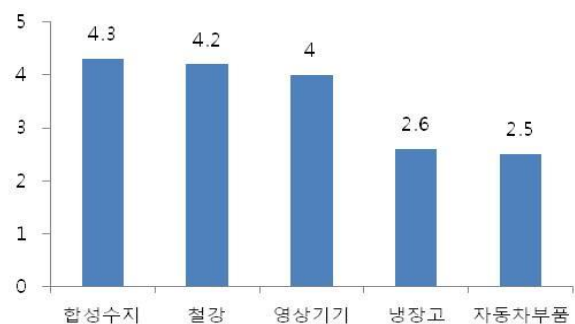
- 對이란 제재로 수출이 제한되었던 자동차부품과 자동차 관련 철강제품 등은 핵 협상 타결에 따라 제재가 완화되어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
- 가장 큰 수혜산업은 건설시장이 될 전망이며, 이밖에 화학, IT, 가전 및 섬유제품 등도 주요 수혜 품목으로 부상할 전망

<한-이란 교역액(억불)>



출처: 한국무역협회

<주요 수출 품목(억불, '14)>



○ 이란은 핵 협상 타결이 석유수출 확대와 투자유입 증대를 가져와 침체에 빠진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함

- 로열더치셸, 에니(Eni) 등 석유 메이저 기업들은 테헤란을 방문하여 이란 석유산업 관련자들과 만나 현지 투자에 대해 논의함(6월24일)
- 이란 정부는 2020년까지 에너지 개발 투자에 5,000억 달러 유입 기대

□ 제재해제 이후 이란의 주요 사업기회 분야로는 건설시장,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산업, 철강시장 등이 유망함

- 핵 협상 타결로 1,000억 달러의 동결자산이 이란으로 유입되면서 오일 및 가스, 금융, 자동차 산업부문에 상당한 투자가 이어질 전망
 - 특히 1,000억 달러를 오일 및 가스부문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예정

① 건설시장

- 이란은 풍부한 자원개발과 부족한 인프라 개선을 위해 다양한 건설관련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발주되고 있음
 - 한국 건설업체는 2014년 12월까지 총 97건, 120억 달러를 수주했으며, 이란은 세계 15위의 한국 수주 대상국으로 특히 2010년 7월 1일 대이란 제재가 본격적으로 발효되기 이전에는 한국의 6대 건설시장이었음
 - 이란 건설시장은 2013년 11월 이란 핵 협상 잠정 타결에 의한 일부 제재 해제 등으로 회복되고 있음
 - BMI(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)는 이란의 건설부문 성장률이 2016년부터 5년간 평균 3.4% 달성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 제시

<이란의 연도별 건설시장 규모 추이(단위: 억 달러)>

	2012년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
건설시장 규모	659	887	1,065	1,283	1,544

주 : 2012~13 년은 추정치, 2014~16 년은 전망치

자료: 해외건설협회

- 이란 정부는 2025년까지 석유부문에만 5천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

<최근 이란의 석유 부문 주요 신규 프로젝트 추진 현황(단위: 억 달러)>

프로젝트명	예산규모	주계약 체결시기	주계약 완공시점
Kish 가스전 개발 (2.3 단계)	50	2014.11 월	2017 년
이란-인도 해저송유관 부설	40	2015.11 월	2020 년
Golshan 역외가스전 및 Ferdowsi 역외유전/가스전 개발	60	2015.12 월	2019 년

자료: MEED.

② 자동차 산업

- 이란은 1959년 자동차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시작한 후, 중동 최대의 자동차 생산국으로 도약

- 2014년 연간 100만대 생산을 달성하였으며, 25개의 자동차 회사 및 1,200개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가 활동 중임
- 3대 국영 자동차회사인 이란 호드로(Iran Khodro), 사이파(Saipa), 파르스 호드로(Pars Khodro)사가 전체 시장의 90% 이상 차지
- 2010년 제5차 5개년 계획 발표시, 이란 산업부는 2025년까지 세계 11위, 아시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으로 부상한다는 계획 수립
- 이를 위해 승용차 226만대, 상용차 24만대 등 연 250만대의 자동차 생산 목표 수립
- 그러나 경제제재 기간 동안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부품 수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으며 다수 관련기업 도산
 - 특히 제재 기간에 중국산 부품이 시장의 70% 이상을 점유하며 품질저하문제로 이란 자동차산업이 20년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
- 이란에 기 진출했던 자동차업체는 제재완화 이후 주요 부품 수출재개를 위한 방안 모색
 - 자동차 분야 기업들은 이란 국제자동차 부품 전시회 참가를 통해 이란 기업과의 거래를 위한 접촉을 재개하였음
 - 최근 르노, 푸조-시트로엥사는 이란 산업부 네마차데 장관과의 면담시 양국간 자동차분야 협력을 2011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방안 논의
 - 푸조는 '푸조301'과 '푸조2008' 모델 등을 오는 2020년까지 3백만대 규모로 현지 생산해 판매할 계획이라고 발표함

③ 철강시장

- 이란의 철강산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로, 이란은 2,200만 톤 이상의 조강생산 능력을 지니고 있는 중동 최대 철강생산국임
 - 소비량 역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전체 수요량의 30%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, 특히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자동차 강판 등 주요 부품을 수입하고 있음
 - 경제제재 이전에는 한국 철강사의 이란 자동차용 강판 점유율이 50%를 상회할 정도로 시장을 지배하였지만, 제재로 인해 점유율 크게 하락함
 - 이란은 철강산업 도약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는데, 이란의 2020~2025년 강제수요는 4,000만~5,000만톤 예상
 - 국영 Mobarakeh Steel은 2025년 이란의 철강수요를 5천 1백만톤으로 전망

3. 이란 시장 진출 방안 및 시사점

- 이란은 경제제재 해제시, 풍부한 인구와 자원 그리고 중동 최대 제조업 기반 등 향후 중동 최대 경제대국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
 - 특히 경제제재 이전 이란의 철강, 자동차, 건설분야는 중동 최대시장으로 핵 협상 타결로 본격적인 제재 해제시 큰 수혜가 예상되는 시장임
 - 그러나 이란 시장 공략에는 서방 및 중국기업들과의 경쟁심화, 인적 네트워크 재구축 문제, 파이낸싱 확보 등의 어려움도 있음

□ 주요 사업의 분야별 진출방안은 다음과 같음

① 건설 분야

- 이란의 주요 프로젝트 발주처는 정부, 준정부 기관, 순수 민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, 대규모 프로젝트는 대부분 정부 주도이므로 정부 및 준정부 발주에 집중할 필요 있음
 - 프로젝트 발주형태로는 GCC 국가들과 달리 이란은 재정이 열악하여 EPC 보다는 파이낸싱을 요구하는 프로젝트가 대부분임
 - 따라서 금융조달에 있어 금융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해 이란 사업을 위한 맞춤형 파이낸싱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
 - 이란 경제제재 해제로 중단됐던 사업이 동시에 대규모로 발주될 경우 파이낸싱에 대한 병목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
 - 따라서 한국의 공적수출신용기관(ECA) 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이낸싱 재원을 발굴함으로써 기업별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함

② 자동차 분야

- 이란은 에너지 의존 경제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, 철강 등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음
 - 이란의 에너지 산업은 전체 GDP의 40%, 재정수입의 60%, 수출수익의 80%를 차지하는 이란 최대 산업비중을 차지하고 있음
- 이란 자동차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현지 업체 거래처 확보가 중요
 - 최근 제재이전 이란에서 강세를 보였던 유럽계(르노, 푸조 등) 자동차社들이 진출 복귀를 서두르고 있어 이들과의 관계 개선도 중요

- 또한 제재기간 자동차 주요 부품을 중국제품이 차지하였으나 품질저하로 불만이 누적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업체들의 좋은 품질을 앞세운 경쟁력 확보 필요

③ Trading 부문

- 이란 제재해제시 생필품 등 소비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
 - 이란인들의 한국산 품질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 입장이지만, 중동 시장의 가격 우선시 사고로 품질과 함께 가격 경쟁도 대비해야 함
- 또한 이란 정부의 최우선 사업인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에너지 관련 기자재와 제조업 육성을 위한 자동차 부품과 철강재 등도 유망사업 분야임
 - 철강재는 이란 수출 2위('14년 기준) 분야로 자동차 강판 등과 에너지 관련 철강재 수출이 대부분 차지
 - 따라서 에너지 및 자동차 시장 신규 투자 동향 등 지속 모니터링 필요

□ 이란시장 재진입 및 신규진출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

- 경제·금융제재 해제는 연말까지 진행될 이란의 군사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 결과 이후 단계적으로 해제
 - 또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 의회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미 의회 인준에도 어려움 예상
 - 실제 제재 해제는 빨라도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
- 건설시장은 자재·장비 조달여건 등 기반시설과 법체계 등 현지사정 분석 이후 진출 여부 결정
 - 제재해제 이후 건설관련 법체제 수정 등을 철저히 분석한 후 단계별 접근 필요
- 핵 협상이 타결되었지만, 정치변동성과 문화적 상이(이슬람문화) 등 정치, 경제적 리스크 대비해야 함
 - 이란의 핵 합의 이행의 합의내용 파기시 65일 이내 제재 재발효(Snapback 조항)도 대비해야 함
 - 또한 야바쉬(Yavash) 문화(중국의 만만디 관습처럼 특유의 슬로우 문화) 등 이란 특유의 비즈니스 문화도 이해해야함

[참고자료]

[보고서]

무역협회, “이란 핵협상 극적타결, 거대 이란시장이 열린다”, 2015.7.15

KOTRA, “경제제재 오나화 대비 대이란 10대 수출 유망품목 및 진출방안”,

[언론]

한국경제신문, “이란핵협상 타결, 자동차, 철강, 건설플랜트 등 수출길 열려”, 2015.7.15

[홈페이지]

국제금융센터(www.kcif.or.kr)

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(www.icak.or.kr)

MEED(www.meed.com)